

韓國戰爭環境과 오늘의 狀況

(東國大 行政大學院長)

민 병 천

1. 머리말

6·25 戰爭을 경험한지도 이미 30余年이나 지났으나 아직도 韓半島에는 平和가 확립되지 못한 채 긴장을 안고 있다. 긴장은 戰爭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6·25 戰爭에서 어떤 敎訓을 얻어 戰爭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그 敎訓은 여러 角度에서 찾아볼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어떤 環境에서 戰爭이 일어나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당시의 環境과 지금의 環境에 일치점이 있다면 다시 戰爭이 날 수도 있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戰爭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당시의 環境을 國際的 측면과 國內的 측면에서 보되, 주로 政治 및 軍事的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당시의 環境을 분석하는 과정에 우리의 지금의 現實과 부분적으로 대조시키기로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늘의 狀況判斷에 대한 어떤 시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國際環境(美·소의 政策)

美國과 소聯은 韓民族運命에 대하여 第2次 大戰후에 세가지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 하나는 日帝로부터 우리의 民族을 해방시켜 준 것이다. 노예상태에 있었던 우리 民族은 聯合國의 승리로 日本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었던 것이다. 다른 하나는 分斷을 시킨 일이다. 解放과 더불어

그들은 韓半島를 38度線에 따라 兩分하여 주둔하면서 軍政을 실시함으로써 祖國은 분단되기에 이르렀다.

한편, 分斷과 더불어 그들이 자기 南과 北에서 親美勢力과 親소勢力을 지원함으로써 民族이 自由와 共産의 두 세력으로 갈리어 對立하기에 이르렀다. 이 對立이 6·25 戰爭으로 물고 가게 한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본다면 對立을 하게끔한 後援者들로서의 美國과 소聯은 韓國戰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韓國戰爭을 생각할 경우 전쟁직전에 두나라의 對韓政策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는데 여기서는 美國의 것을 주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첫째, 韓國을 美國의 防衛線내에 포함시키던 政策이 제외시키는 政策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美國은 第2次 大戰때까지는 太平洋 防衛線을 하와이—알라스카—파나마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戰後에는 그것을 확대하여 알라스카—아류산列島—日本—韓國—필리핀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1950年 1月 10日 애치슨(당시 국무장관)이 美國의 防衛線을 알라스카—日本—오키나와—필리핀임을 시사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美國이 太平洋에서 도서戰略을 지향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었다.

이 도서中心戰略은 유럽에서의 戰略과는 다를 것을 뜻하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前進戰略을 택하면서 NATO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共同對處하고 있었는데 東쪽에서는 日本만을 방위하는 소극책을 택하고 있음을 뜻한다.

韓國이 美國防衛線밖에 있다는 公言은 共産側

을 크게 고무하고 자극하는 것이다. 共産南侵이 있다고 하더라도 美國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假定을 共産側이 갖기에 충분한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美國의 對韓政策과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 美國은 南韓을 防衛線안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평가된다. 형식제도면에서 보면 韓美防衛條約에 따라 美國은 南韓의 방위를 위해 역할을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실제면에 있어서는 두가지 사실에서 美國의 對韓防衛保障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적어도 每年 1회이상의 對韓防衛公約의 確약이 있다는 점이다. 우리 政府의 고위관계자가 美國을 방문할 때나 美國의 고위관계자가 우리를 방문할 때, 또는 韓美年例安保協議會에서 韓國防衛가 다짐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美軍이 南韓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美軍주둔은 美國이 한국을 防衛對象地域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가장 구체적으로 표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상황의 전개로 볼 때 일시적으로 美國의 對韓防衛努力이 증대되고 있다고 해도 장기적, 종합적으로 보면 6·25 前과 비슷하게 美國의 힘이 빠지는 큰 물결이 일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레이건 行政府가 있는 1987年까지는 6·25 前夜와 같은 美國의 발뺌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큰 흐름으로 보아서는 발뺌政策이 기본에 깔리게 될 듯 하다.

둘째, 6·25 前에 駐韓美軍을 철수시키고 직접적인 방위 책임을 美國에서 지지않고 있었다는 점이다.

美國務省은 1949年 6月 8日(전쟁 1年전)에 성명을 발표하여 年內에 철군을 완료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실천하였다. 이것은 南韓이 美軍을 주둔시키거나 基地를 유지할 만한 전략적 가치가 없고 極東地域에서 敵對狀態가 일어 났을 때 駐韓美軍은 군사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韓國軍의 훈련과 장비 및 경제원조 《國防과 技術 1985. 6》

의 제공을 하는 대신 撤軍하기로 하여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다. 美軍의 철수는 韓國軍의 충분한 건설이 갖추어지기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北韓(충분한 군사조직화와 병력을 갖추고 있었음)으로 하여금 南侵에 의한 赤化統一欲求를 갖게 했다고 본다.

한편, 현재의 상황은 그때와 어떻게 다른가?

지금은 비록 規模面에서 크지는 않지만 美軍이 주둔하고 있고 그것이 곧 떠날 것으로 예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每年 봄에 실시하는 韓美聯合訓練을 통해서 침략에 대처할 것임을 뚜렷이 보이고 있다. 駐韓美軍은 장비면에 있어서도 戰術核武器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南侵이 다시 있게 된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美軍에 대한 공격이 되기에 이르러 美國의 자동개입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그것은 核武器와 같은 강력한 武器들에 의한 대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6·25 直前과는 달리 지금은 막강한 장비를 갖춘 美軍이 주둔하고 있어서 정상적인 南侵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만약 南侵을 하려면 國軍服裝으로 가장한 特攻隊의 대량 후방 침투와 같은 방법을 택하게 될 것이다.

셋째, 南北韓의 군사력과 군사정세에 대해서 당시에 美國이 잘못 판단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美軍撤收당시의 南北韓의 병력이 26,000명對 15,000명으로 南쪽의 우위를 나타냈으나 中國內戰이 끝남에 따라 中共軍에 가담했던 韓인이 北韓으로 들어오면서 北韓共産軍은 급증하였다. 그 결과 6·25 당시에는 8만 2천(남)對 20만(북)의 격차를 보였다.

美軍撤收가 있게 되자 韓國은 20만 병력보유와 100대의 航空機보유를 희망했으나 美國에 의해서 거절되었다. 美國은 中共軍에 참가한 韓國人의 北韓으로의 유입을 계산치 못하고 오히려 韓國軍을 증강시키면 北進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진 듯 하다.

그에따라 南侵問題에 있어서도 게리라戰이나 예상하고 全面南侵은 별로 생각하지 못한 듯하다. 힘의 균형이 크게 깨지자 강력한 軍事力을

가진 北韓은 南侵을 생각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지금은 美國이 北韓에 대한 평가가 종래와 같지 않으나 韓國軍이 北韓보다 우세하게 되는 것을 원치않는 점에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이다.

셋째, 소聯軍이 北韓에서 완전히 철수했다고 발표하고도 고문단으로 남아 北韓共産軍을 지원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소聯은 1948年 12月 25日 北韓으로부터 撤軍은 완료했다고 했으나 고문단은 北韓에서 軍事支援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1948年 12月에는 北韓共産軍의 기계화완료문제, 주요 군사지도자(북한, 중공, 소련)가 논의(소련불가닌 국방상이 의장)했고 대대적인 南侵作戰計劃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實務陣이 평양에 도착했다. 그 계획에 따라 1950年 2月 步兵 2개師團과 戰車 및 다른 기계화部隊가 참가하는 合同訓練을 실시하였는바 그것이 南侵演習이었다.

美國은 이때에 韓國에 대한 建軍과 軍援管理에 중점을 두고 있었는데 대해서 소聯은 이미 北韓에 대해 大部隊作戰能力(전쟁지도 능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政策的인 큰 차이를 보인 것이다.

당시의 北韓軍은 소聯과 中共軍에서 실전경험을 가진 사람을 다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建軍이 아니고 그것의 능력향상에 중점을 둘수 있었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南侵의 성공을 예측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당시에 비하면 지금 소聯의 對北軍援政策은 南쪽에 비하여 월등하게 되는 것을 촉진하지는 않고 있다. 北쪽이 우위를 차지하도록 하지만 6·25당시와 같은 뚜렷한 차이가 나게 하려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南쪽보다 優位의 軍事力을 갖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는 그때와 마찬가지로이다.

다섯째, 당시에는 美·소를 중심으로 하는 兩極의인 冷戰이 첨예화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第2次大戰이 끝난뒤 40年代는 戰後秩序가 재편성되는 기간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때 소聯을 중심으로 하는 共産主義勢力의 팽창이 도처에서 있었고 이것을 막으려는 노력이 美國을 중심으

로 하여 展開됨으로서 世界는 두개의 陣營으로 갈리어 冷戰이 여러곳에서 계속되고 있었다. 유럽에서는 東歐를 共産化시킨 소聯의 진출이 美國의 강력한 저지에 부딪쳐 大戰後 1~2年 내에 멈추어지고 말았다.

그리하여 1947年뒤 부터는 아시아에서의 共産化에 박차가 주어져 1949년에는 中共의 共産化가 이루어졌다.

소聯을 중심으로 하는 單一的인 지도체제가 共産圈내에 확립돼 있었던 당시에는 소聯을 중심으로 하고 中共의 협력을 얻어 北韓에 의한 韓半島의 赤化가 아무런 지장을 받지않고 共産圈內에서 계획되고 진행될 수 있었다.

그리하여 中共軍내의 韓人을 北韓에 대량으로 유입시켜 전투경험을 가진 兵力으로 증강된 北韓에 의한 南侵成功을 믿었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美·소兩極體制가 아니며 美國과 소聯의 지도성은 뚜렷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지금은 기본적으로 冷戰의 時代가 아니고 平和共存(현상유지)의 분위기에 있다. 따라서 그때와 같이 美·소가 韓半島赤化를 위해 선뜻 共同으로 나서기는 쉽지않다고 본다.

그러나 그 당시와 비슷한 몇가지 상황은 아직도 存在한다. 하나는 비록 美·中和解와 협력이 있지만 美·소간에는 새로운 冷戰氣運이 고조되고 있어서 韓半島 주변에서 그들의 대결상이 두드러지게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南韓支援에 있어서의 日本의 위치는 군사적인 면에서 매우 약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美·中協力을 한다고 해도 두 나라는 각각 그의 友邦(南쪽에서는 韓國, 北쪽에서는 북한)에 대한 軍事支援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런데다가 그때나 지금이나 소聯의 팽창主義 내지는 적극진출정책과 戰略은 변치않고 있어서 베트남에 大基地를 가지면서 東海에서 太平洋과 印度洋을 연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당시와 다른 狀況展開도 있지만 그때와 비슷한 면도 있다는 점들에 우리는 注目할 필요가 있다.

3. 國內環境

韓國의 內的 環境으로 政治社會의 分열과 군사적 불균형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 政治社會의 分裂

해방후의 韓國政治狀況을 한마디로 혼돈과 혼란의 分출이었다고 볼수 있겠는데 1950年 봄의 政治狀況 및 社會狀況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다.

첫째, 1948년에 수립된 韓國政府가 모든 南韓의 政派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었고 右派도 分열되어 政治統合力을 갖지 못했다는 점이다.

韓國政府가 수립되기 이전의 南韓政治情勢는 극도의 分열과 혼란속에 있었다. 李承晚氏와 韓民黨系, 金九氏와 韓獨黨系, 金奎植氏의 中道右派와 呂運亨과 中道左派 및 南勞黨등 左派로 크게 나누어 볼수 있겠으나 그 밖에도 많은 政黨들이 난립하고 있었던 것이다.

韓國政府의 수립은 그러한 政派亂立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政府樹立과 더불어 左派(특히 南勞黨)는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政府樹立過程에서 李承晚등 그 주도세력은 전체 右派의 지지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政府樹立후에도 그 정부의 統合力이 강할 수가 없었다. 南韓에서만 政府樹立을 반대한 金九와 韓獨黨系 및 金奎植系등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대부분 6.25戰爭當時까지도 體制參與를 거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政治統合力이 약한 상황을 北韓측은 공격의 虛點으로 잡았던 것이다.

지금의 狀況도 政治적으로 兩極化되는 듯하여 그 당시와 어느 면에서는 비슷한 듯하나 지금의 反對勢力의 대부분은 體制에 참여하면서 政府에 반대하고 있어서 당시와는 크게 다른 상황을 보이고 있다.

둘째, 6.25戰爭 직전에 中道系(中道左派와 中道右派)가 크게 政界에 진출하였다는 점이다.

1950年 5月 30일에 실시된 제 2대 國會議員選舉에서 趙素昂(中道右派?)이 趙炳玉(右派)을 이

기고 國會에 진출하는등 都市에서 反政府勢力의 국회진출이 두드러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政府는 전보다 훨씬 政治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右派나 中道系의 政治界의 진출에서도 政府는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었지만 南勞黨員중에서 進향한 者들로 조직된 報導聯盟員이 약 20만에 이르고 있어서 잠재적인 反政府勢力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北韓은 바로 이러한 南韓의 힘의 分散과 南侵時에 보도연맹원이 背後力量(지하당조직, 고정간첩, 보도연맹원등)으로 지원해 줄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있다. 사실 北韓은 戰後에 전쟁실패가 사전에 기대했던 背後蜂起가 없었기 때문으로 평가했던 것이다.

지금도 與野의 兩極적인 分化的인 傾向을 보이고 있고 일부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하는 反體制(左傾)性向이 있다는 점에서는 약간 그때와 비슷하다.

그러나 野黨이 그 때의 反對勢力과는 다르며 左傾勢力도 그리 크다고 볼수 없어서 北韓이 南侵을 감행할 만큼의 상황은 아니다. 다만 지난 번에도 그러했듯이 北韓이 지금 南쪽에서 일고 있는 學生事態등을 지나치게 北쪽에서 유리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셋째, 共產勢力의 테러등의 활동과 그 가능성으로 治安狀態에 불안요인이 잠재했다는 점이다.

1948年 政府수립이 될 무렵에 濟州道에서 폭동이 일어나고 叛亂으로 발전하자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 麗水와 順天에 軍을 투입하려 했다. 그러나 이 麗水와 順天의 부대가 반란을 일으켰다. 南下遊擊隊와 더불어 叛亂部隊의 잔당이 入山함으로써 共產叛徒의 준동이 상당기간 계속되었다.

濟州道の 公산활동은 오래 지속되어 1952年말경에야 완전히 소탕될 정도였다. 內陸에서도 지리산과 태백산, 속리산, 덕유산, 백운산 등을 중심으로 하여 南派遊擊隊와 지방공산 유격대가 1950年에도 계속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6.25戰爭이 날 당시에 內陸에 존재한 유격隊

員은 500명 내외였으나 그 때문에 南韓의 治安은 三南地方에서 때때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南派隊員과 地方共產分子등의 유격활동이 계속되자 北韓은 南侵을 할 경우 이들 유격隊員을 중심으로 하는 대대적인 人民蜂起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본다. 즉 南韓에서의 治安力の 약화가 北韓지도층으로 하여금 南侵을 하게끔 자극한 요인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실 北韓 金日成은 전쟁이 끝난뒤 이 점을 아쉬워했다. 즉 「개전당시 敵(남한)의 후방에 약 3천명의 工作員(유격대원과 간첩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등의 폭동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我方(북한)의 후방에서 폭동이 야기되었으니 이것은 政治的 실패의 가장 큰 문제이다」고 자기 반성과 자기비판을 할 정도였다.

지금은 당시와 같이 共產遊擊活動이 南韓에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 道路와 通信 및 行政組織의 발달, 그리고 運輸移動密度的 증대등으로 유격대의 활동무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都市에서 부분적으로 일고있는 反政府나 反體制的인 젊은이의 행동은 비록 유격활동이 아니지만 北韓지도층에게 憂患의 소지를 제공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주목될 만하다.

나. 軍事的 不均衡

한편, 軍事情勢면에서 볼때 6·25戰爭전에 38線을 사이에 두고 쌍방의 軍隊間에 끊임없는 충돌이 있었다. 주로 開城, 白川, 議政府地方, 春川地方, 웅진 등에서 충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小銃에 의한 작은 충돌을 하다가 점차로 충돌이 잦아지고 규모도 커졌다. 北쪽에서 도발을 한것은 38警備旅團으로서 그 배후에 攻擊部隊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충돌은 당시에 두가지 결과(영향)를 가져 왔다. 하나는 일선將兵간에 敵對感을 크게 고조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그것이 쌓여 緊張의 누적에 따르는 戰爭基盤이 형성되어 갔다는 점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일선將兵뿐만 아니라 쌍

방의 일반住民들 사이에서도 戰爭不可避論이 일어나는 긴박감이 계속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긴장한 軍事政勢 속에서 南北의 軍事力이 큰 불균형을 나타내자 北韓의 南侵政策決定은 뚜렷해질 수 있었다. 美國은 韓國에서의 軍隊를 戰鬥軍으로서 보다는 治安軍으로서 유지하는 것을 주로 하였으나 北韓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南北간에는 뚜렷한 軍事力不均衡이 발생했을 때 그것은 質量兩面에서 모두 그러했다.

소聯은 해방직후에 약 3만명을 선발하여 소聯 士官學校에서 3년간 소聯式 將校訓練을 시켜 人民軍의 창설을 준비했고 그에 따라 1948년에는 戰車訓練까지 할수 있는 수준의 軍事力을 갖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中共軍에 참가했던 韓國人들이 北韓으로 들어와 第6師團, 第5師團, 第7師團등을 창설하는등 實戰經驗을 가진 將兵만도 35,000에서 4만여명에 이르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韓國軍은 극소수의 日本軍과 光復軍에서의 경험자를 주축으로 하는 대부분의 新參者로 軍隊를 건설했던 것이다. 즉 「人民軍」은 이미 상당한 전투경험을 가진 兵力을 주축으로 하고 있어 질적인 우세를 가지고 있었다.

質的인 면에서 뿐만아니라 量的인 면에서도 共產軍은 훨씬 앞서는 戰力을 보유하고 있었다. 총兵力에 있어 南北韓은 6·25 당시에 약 10만명對 18만명으로서 거의 2배의 兵力上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戰車에 있어 北韓은 242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南쪽은 전혀 없었는데 戰爭이 나자 이 戰車의 위력은 대대한 것이었다. 航空機에 있어서도 北쪽은 211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南쪽은 연습기 22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北韓은 6·25당시에 兵力과 裝備에 있어 월등이 앞섰고, 戰鬥經驗과 교육훈련의 규모와 性格에 있어서도 뚜렷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軍事的 불균형이 戰爭을 일으키게 北韓의 지도층을 자극했을 것이고 소聯이나 中共도 그것을 고려하여 南侵을 계획하거나 승인했을 것이다.

지금의 南北韓軍事力은 그 당시 만큼의 不均衡狀態에 있지는 않다. 비록 많은 분야에서 北韓의 군사력이 앞서고 있고 종합적으로도 앞서고 있기는 하나 不均衡이 위험상태에까지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美軍이 부족부분을 보충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러나 綜合的인 면에서 南쪽의 군사력은 北쪽의 3분의 2에도 미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南北의 軍事不均衡은 6·25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존재한다. 다만 2분의 1 이하에 머무를 정도가 아닐 뿐이다.

따라서 지금도 北쪽에서는 軍事優位라는 상황에 다른 상황(이를테면 南쪽에서의 대대적인 혼란야기)이 추가될 수 있다면 南侵을 할 뜻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50년의 6·25戰爭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여러 環境條件들이 존재했던 것이다.

즉 ① 소聯의 對北支援이 적극성을 보인 반면

美國이 발뺌政策을 취하자 美國介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 共產側이 南侵을 감행할 바탕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② 共產側은 南쪽을 정복할 충분한 能力을 갖추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반면에 南韓은 政治的分裂과 사회적 혼란(치안상의 문제)을 들어내고 南侵에 대응할만한 能力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③ 南쪽에 존재했던 親共分子에 대해 北쪽이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④ 軍事的 불균형이 뚜렷했고 美國은 이 상태에 대해 妥協하고 있었다.

이상의 諸條件은 모두가 共產側을 자극할만한 것들이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는 많이 다르다.

그러나 기본성격면에서는 유사한 것이 많다. 군사불균형, 國內政治 및 社會의 문제등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때와 성격에 있어서는 같은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南北간에 전쟁이 재개되지 않도록 하려면 그때에 있었던 바와 같은, 그리고 기타의 戰爭可能條件들을 없애야 할 것이다.

